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출범

93개 노동·인권·시민사회·학술·법률단체, 종교계, 정당 등 참여 ... 연내 정기국회 개정 쟁취 결의

노동 3권을 무력화하는  
쟁의행위 손해배상·가압  
류를 금지하고, 원청에 사  
용자 책임을 묻기 위해 노  
동조합과 노동·인권·시  
민·사회·학술·법률단  
체, 종교계, 정당들이 손을  
잡고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를 띄웠다.



쌍용차 해고자가 전원 복  
직에 합의한 날이다” 라며  
“2009년 파업 이후 9년  
만에 쌍용차 해고자 전원  
복직 문제를 해결했지만,  
손해배상은 13년째 이어지  
고 있다. 피해당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노조법을 꼭  
바꾼다는 마음으로 이 자  
리에 섰다” 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등  
이 참여하는 ‘원청 책임 / 손해배  
상 금지(노랑봉투법)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이하 운동본부)가 9  
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범을 선언  
했다. 운동본부에 93개 시민사회단  
체와 노동조합, 네 개 진보정당이  
참여하고 있고, 참여 단위는 더 늘  
 전망이다.

운동본부 공동대표를 맡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현행 노조법은  
노동 3권을 보호하기는커녕 노동 3  
권을 침해하고, 자本是 법을 이용해  
노동권을 파괴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라면서,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 하이트진로 화물노동자, 쌍용자동  
차 노동자 투쟁 등 침해 사례를 들  
었다.

양경수 위원장은 “노동자들이 노  
동자로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노  
조법 2조·3조 개정이 무엇보다 절  
박하다” 라며 “우리는 오늘 이 자

리에서 연내 노조법 2조·3조 개정  
을 위해 함께 투쟁할 것을 결의한  
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운동본부 공동대표인 박래군 손잡  
고(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 대표는 ▲시민참여 대중 캠페  
인 ▲국정감사, 입법 등 국회 대응  
▲손배·가압류, 원청 책임 회피 실  
태 증언대회·토론회 ▲온·오프라  
인 대중행동 등 사업계획을 발표했  
다. 박래군 대표는 “이번 정기국회  
에서 노조법 2조·3조를 개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다짐했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장, 김형수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  
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장, 박수동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하이트  
진로지부 2지회장, 진경호 서비스연  
맹 전국택배노동조합 위원장이 현  
장에서 노조할 권리와 노동 3권이 어  
떻게 침해받는지 증언했다.

김득중 지부장은 “4년 전 오늘

김득중 지부장은 경찰이 2009년  
이명박 정권의 무리한 쌍용차 파업  
진압은 국가폭력임을 인정했다며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13년 넘는  
세월 동안 하루하루 힘들게 견뎌내  
고 있다. 경찰 진상조사 발표 결과  
에 따라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려는  
등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한다” 라  
고 촉구했다.

김형수 지회장은 “대우조선은  
470억 원 손배·가압류 소송으로 하  
청노동자들에게 죽으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라고 꼬집었다. 김 지회장은  
“거통고 조선하청지회는 인간다  
움을 간직한 모든 분과 이 투쟁을  
함께하겠다” 라고 결의했다.

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마치며,  
대형 노란 봉투에서 ‘노조할 권리  
보장’ 과 ‘원청 사용자성 인정’,  
‘손해배상 청구금지’ 등이 적힌  
카드를 꺼내 전달하는 상징의식을  
벌였다.